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백제불심 되살려 불교문화 꽃 피우자”

한국에서 12번째로 세계유산 반열에 오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대 한중일의 교류와 발전, 그리고 백제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 백제불교 문화권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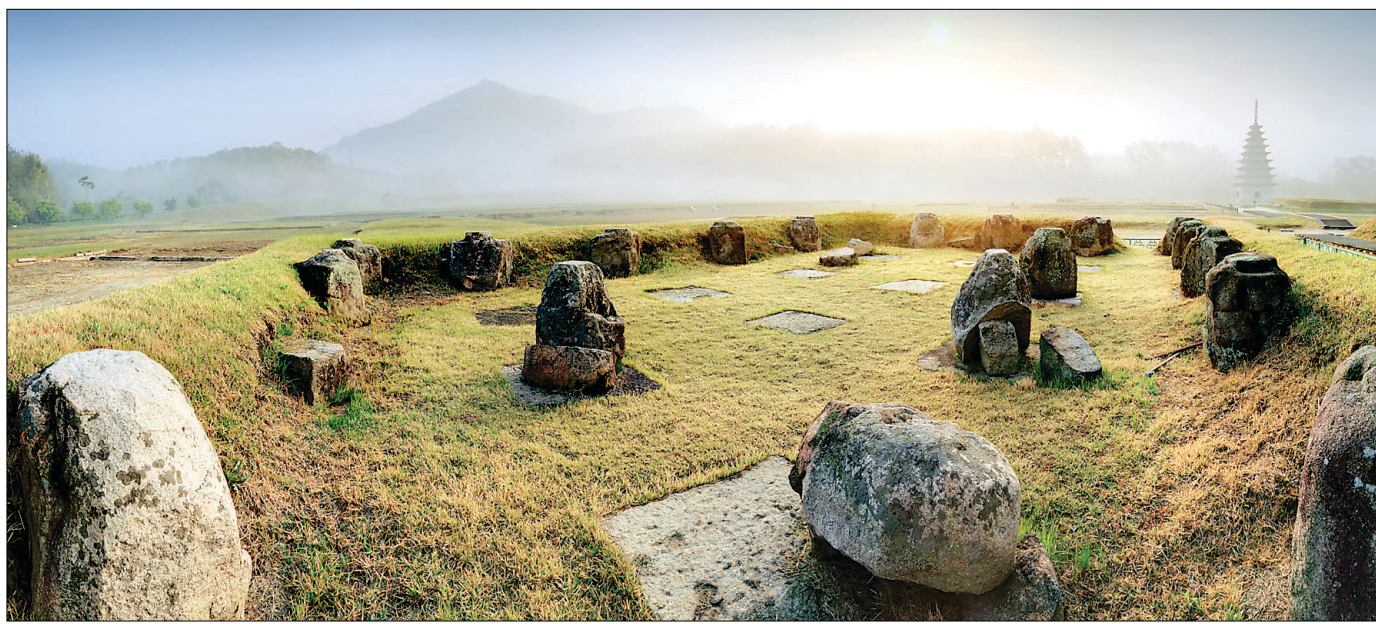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는 등재 권고 보고서에 ‘보존관리계획에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종합계획을 포함시키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륵사지 2017년 복원추진 지역 반발도

익산 미륵사지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이번 등재과정에서 평가받았다. 백제 무왕은 익산을 국가의 새 중심지로 낙점해 백제 흥흥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195억원을 투입, 석탑 시멘트 제거, 해체 및 발굴 조사, 보수 정비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1993년 미륵사지석탑 건너편에 세운 동탑은 하얀 화강암을 기적으로 깎는 바람에 기존 석탑과 부조화가 심하고 현대에 만들어



현재 복원을 위해 해체된 익산 미륵사지 전경. 왼쪽 상단에 서탑의 모습이 보인다. 140여 지역사찰들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불심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진 석탑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실패한 복원’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 5월부터는 무너진 서탑의 복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당초에 9층 석탑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6층만 남아있던 이 서탑을 주민들은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9층으로 완전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형식 마한백제문화유적복원 추진단장은 “익산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시민들이 9층 복원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문화재위원인 최일 스님(참좋은우리절 주지)도 “백제가 패망의 역사이다보니 미륵사지 석탑 또한 무너진 모습으로 남아 있다. 무너진 폐허의 모습으로 된다면 미륵사지 석탑은 천년만년 패배의식을 재생산하는 상징물만이 될 것”이라며 9층 복원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용 학예사는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복원 수리 전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것

공주·부여·익산 사암련 연계 “포교 프로그램 모색”

개발계획 추진 이면에 ‘보존 중시’ 목소리도 높아

이 복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맡은 이코모스(ICOMOS)가 문화재청이 제시한 6층 부분복원안에 기반해 등재를 결정했기에 정부의 부분복원 계획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몰려오는 관광객, 석탑 보존 영향은?

현재 정림사지에는 오층석탑과 석불좌상만이 원위치를 지키고 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사비도성 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석탑이라는 점과 사비도성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정림사지 석탑은 한때 기반 틈새가 미세하게 벌어지고 석탑 자체가 뒤틀렸다는 지적이 나와 문화재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운 일이었다.

2014년 8월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수조사에서도 특별조치가 필요한 4등급 이하에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와 안동화회마을 등은 관람객이 2~3배 이상 증가했다.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학자 홍재선 씨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경우 두 돌로 이뤄진 지붕돌받침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양쪽으로 쳐져 있다. 작은 충격에도 4층 옥개석이 바깥으로 빠져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주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네스코가 ‘적정한 관광객’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관광객 수익을 통한 보존의 원할함



2017년 복원 완료 예정인 익산 미륵사지 동탑

과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존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개별유적이 아닌 백제라는 왕국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부각하는 작업도 함께 과 함께 문화재 보존 복원에 대한 철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52년 설립된 이래 일본 고대 도성 나라(奈良)의 연구 복원을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한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를 예로 들면서 “유산의 원형을 철저히 이해한 후에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불교계 “불심 일으킬 기회” 반색

지역불교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불심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륵사지와 관련된 익산불교사암연합회에서는 복원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타 지역 불자들에게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가기로 했다.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림 스님(관음사 주지)은 “호남 지역은 불심이 약하다

는 평이 있어왔는데 이번 등재를 계기로 호남지역 불심이 활활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림 스님은 현재 매일 관음사에서 미륵사지 복원 완료시까지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덕림 스님은 “익산불교사암연합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인 미륵사지 동탑 복원을 알리는 준공식에 맞춰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며 “미륵사지 사리장엄박물관과 지역 사찰, 수도권 사찰의 성지순례 연계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승림사 주지 지광 스님도 “이미 미륵사지와 능산리 고분군 방문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포교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여불교계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템플스테이 사찰이 부여지역에도 나오기를 기대했다. 부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동국 스님(금지암 주지)은 “아직 부여지역에는 템플스테이 사찰이 없다. 본산인 마곡사 등과 연계해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부여읍내의 사찰들이 매일 1회씩 정림사지에서 공양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의 움직임과 불교계가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중하 스님(신원사 주지)도 “그동안에 사암연합회가 등재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기원 및 발원 법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온 결과”라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스님은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등재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관광벨트 계획 등이 수립되면 지역불교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해당지자체와 문화재청은 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해당지자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2016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유적 복원 및 정비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사찰은?

익산 사자암

〈삼국유사〉에는 ‘무왕은 선화비와 함께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찾아가던 중...’이라는 기록이 있다. 사자암(주지 항봉)은 미륵사지의 뒤편인 미륵산에 위치하고 있는 절로 1993년 발굴조사에서 ‘사자사(師子寺)’라고 쓰여진 기와가 발견됐다. 암자 바로 밑 석굴에는 많은 소동불(小銅佛)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익산 석불사

석불사(주지 휴암)는 한국불교화엄종 본산으로 창건연대는 백제무왕 7세기 전반에 미륵사 창건에 앞서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불사 석불좌상은 얼굴 부분이 파손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칼로 얼굴을 내리쳤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익산 승림사

승림사는 신라 경덕왕 때 진표(眞表) 대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때 보광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타지만 1697년(숙종 23)과 1819년(순조 19), 1892년(고종 29) 각각 전각을 중수했다. 보물 제 825호로 지정된 보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에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부여 고관사

백제고관로 1028년 현종 19년에 중창됐다. 절의 뒤를 커다란 바위틈에는 고관초가 촘촘히 돋아나 있고, 왕이 마셨다는 고관수의 고관샘터가 있고, 주위에는 낙화암·조룡대·사비성 등이 있다. 궁중 내불전이라는 설과 함께 고려시대 백제 후예들이 중창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부여 대조사

부여 성황산 자락에 위치한 대조사는 백제 성왕 때 담해 스님이 창건했다. 부여읍 지에는 겸익이 세운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 노승이 바위 아래서 수도하다 잠들었는데 관음조를 보고 잠에서 깨니 바위가 미륵보살상으로 변해있었다고 하여 대조사로 이름붙여졌다.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보물 217호이다.

부여 미암사

백제시대 지어진 암자형 사찰로 백제무왕 4년 관록 스님이 창건했다. 미암사 초입에는 1966년 금불상이 모셔진 33층의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있다. 경내 썰바위 때문에 미암사라 이름붙여졌다. 절벽을 이룬 암벽에서 쌓이 나온다고 전해진다.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내비뒤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우리 시대에 대한 사색과 통찰, 실천행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살아 숨쉬는 금강경 해설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단순한 금강경 해설서라기보다 대중을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어 편편마다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삶이 공이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감 저음 | 308쪽 | 15,000원 | 민중사 펴냄



일감 스님 법문 및 사인회

일시 8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조계사 대웅전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북 토크 콘서트

일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일감 스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때 5명 선착순 모집 * 문의 민중사 02.732.2403-4